

# 4/ 파워스팟 체험의 현상학

현세이익에서 심리이익으로 \*

## 호리에 노리치카



도가쿠시(戸隠)신사의 신목(삼나무). 파워스팟으로 지명도가 올라간 무렵, JR히가시니혼(JR東日本)의 TV 광고에 사용되었다. 유명 여배우 요시나가 사유리(吉永小百合)가 나무 밑동 굴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욱 인기가 급상승했다. 『아사히신문』의 『사유리 씨가 걸었던 성지…나가노(長野), 도가쿠시, CF 효과로 인파』(2010. 9. 26, <http://www.asahi.com/special/080804/TKY201009250207.html>). 현재는 신목 보호 차 금줄을 치고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필자 촬영 2016. 6. 13)

---

호리에 노리치카(堀江宗正)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사생학·응용윤리센터 부교수. 1969년생. 2008년에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에서 박사(문학)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 『역사 속의 종교심리학』(歴史のなかの宗教心理学)(岩波書店, 2009), 『스피리추얼리티의 행방』(スピリチュアリティのゆくえ)(岩波書店, 2011)이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362-B00006).

<https://doi.org/10.291514/ILBI.2018.18.126>

## 1. 서론

2009년 12월 14일, 메이지(明治) 신궁의 기요마사(清正) 우물 사진을 “휴대폰 대기화면으로 설정하면 운기(運氣)가 상승한다”며 효험을 강조하는 설이 ‘손금 예능인’(手相芸人) 시마다 슈헤이(島田秀平)에 의해 TV상으로 전해졌다.<sup>1</sup> 그 후 기요마사 우물은 ‘파워스팟’(power spot)이 되어 우물물을 찾거나 사진을 찍기 위한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sup>2</sup>

‘파워스팟’이라는 말은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스피리추얼’(원문에 사용된 외래어의 일부는 ‘파워스팟’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우리말로 옮기지 않고 원문을 따랐다-옮긴이) 파워, 에너지, 기가 강하게 느껴지는 장소를 가리킨다. 『현대용어의 기초지식』<sup>3</sup> 2010년 판은 이를 “심신을 치유해주는 자연에너지로 가득한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여행사 DeNA트래블의 「여행과 파워스팟에 관한 설문 조사」(1046명, 2017년 10월 31일~11월 2일 실시)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75.0%가 파워스팟 효과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60대 남성이 26.2%로 가장 낮았다). 파워스팟을 목적으로 한 여행 경험은 40대가 가장 많은 54.0%였다(60대는 29.0%). 젊은층에서 중년까지 특히 여성이 파워스팟에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sup>4</sup>

필자는 「파워스팟 만들기」(パワースポットの作り方)라는 논문에서 ‘파워스팟’ 현상의 발생과 전개를 짚어보며 유럽의 유사현상과 비교했다. 이 현상은 각지 종교문화의 진수를 받아들이려는 뉴에이지적 스피리추얼리티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파워스팟이 신사로 집중되었다. 그 때문에 국가신도의 부흥이라는 움직임과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이전 논고에서는 신기(神祇)신앙보다 자연숭배 요소가 강하며 개인주의적인

1 自由国民社, 『現代用語の基礎知識(CD-ROM)』, LogoVista, 2014, ‘パワースポット’ 항목(2011년 판).  
2 大和友大朗, 「雑誌記事における明治神宮・清正井のパワースポット化の過程」, 『國學院雑誌』 116卷 11号, 2015, 87~108쪽.  
3 自由国民社, 『現代用語の基礎知識(CD-ROM)』, ‘パワースポット’ 항목(2010년 판 이후).  
4 DeNAトラベル, 「約4割の人が『パワースポット旅行』の経験アリ!」, 2017. 11. 15. <https://www.atpress.ne.jp/news/143170>(최종 검색일: 2017. 12. 17). 이하, 별도 언급 없는 최종 검색일은 동일.

성격에 머물고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의 배타적인 내셔널리즘과는 구별된다는 것이었다.<sup>5</sup>

이 글에서는 실제 파워스팟 체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것이 신기신앙이나 현세이익(現世利益, 'げんせりやく'라고 읽으며, 기원이나 염불 등을 통해 신불의 가호를 받아 이세에서 얻는 현실적 이익을 의미-옮김이)으로 수렴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파워스팟 붐을 본래의 신기신앙에서 이탈한 유행으로 결론짓는다. 또 관광 연구에서는 진정성과 상품화의 관계가 자주 논의되어왔다. 이와 달리 파워스팟 체험은 현세이익을 추구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심리이익'에 역점이 있으며 자연승배를 통해서 진정성 있는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규명할 것이다.

## 2. 파워스팟 현상의 시작: 대지와 연결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한 논문에 따라 파워스팟 현상의 역사적 전개를 간단히 짚어보겠다.

파워 스팟이라는 말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뉴에이지 관계자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특히 나라(奈良)현의 덴카와다이벤자이텐샤(天河大弁財天社, 덴카와 신사)는 뮤지션들 사이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알려졌다. 『현대용어의 기초지식 1986』에서는 와키모토 쓰네야(脇本平也)가 '파워스팟'을 "우주의 정기와 영력이 응집하는 성지"로 정의하고 있다.<sup>6</sup> 덴카와를 다니며 그 이름을 널리 알린 종교학자 가마타 도지(鎌田東二)는 덴카와 신사의 특징으로, 그 중심에 자연승배가 있다고 설명한다.<sup>7</sup> 가마다에 따르면 고대에는 신도가 신사를 두지 않고 산 그 자체를 신령이 나타나는 통로로 신성시

5 Norichika Horie, "The Making of Power Spots: From New Age Spirituality to Shinto Spirituality," Jørn Borup and Marianne Qvortrup Fibiger eds., *Eastspirit: Transnational Spirituality and Religious Circulation in East and West*, Brill, August, 2017, pp.192~217.

6 脇本平也, 「パワースポット」, 『現代用語の基礎知識1986』, 自由国民社, 1986, 690쪽.

7 鎌田東二·津村喬 編, 『天河曼荼羅: 超宗教への水路(チャンネル)』, 春秋社, 1994, 12~13쪽, 18쪽.

하는 자연숭배였다고 한다.<sup>8</sup>

유럽에서는 일본의 파워스팟보다 늦은 1980년대 후반 볼텍스(Vortex)('소용돌이'를 의미하며 대지의 에너지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 주목되었다. 1990년대 일본의 뉴에이지에서는 국내보다도 해외의 파워스팟에 관심을 모았다. 특히 미국에서 온 많은 '채널러'(Channeller, 우주적 존재를 포함해 고차원적 영과 의 소통에 특화된 영매)가 일본 국외의 파워스팟을 찾아가는 투어를 기획했었다.<sup>9</sup>

일본에서 파워스팟이라는 말이 책 제목에 등장한 것은 초능력자 기요타 마사키(清田益章)의 『발견! 파워스팟』(1991)이 처음이다.<sup>10</sup> 기요타는 이 말을 뉴에이지의 유래로 보면서 가이아가설(지구를 여신 가이아에 견주어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설)과 레이라인(에너지를 발하는 땅이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견해) 외에 용맥이나 용혈(대지의 기의 흐름이나 유출구)이라는 풍수 개념도 언급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누구나가 파워스팟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한다.<sup>11</sup> '파워스팟'이란 지구가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장소로, 풍경이 아름다운 장소, 유서 깊은 신사나 사원이 있는 곳에 많다고 한다.<sup>12</sup>

2000년대 후반에 파워스팟 붐이 일기 전, 일본에서 파워스팟으로 유명했던 것은 나가노(長野)현 분구이고개(分杭峠)의 '제로 자장'이다. 이곳은 중앙구조선(中央構造線, 일본 열도를 종단하는 최대 단층-옴긴이) 바로 위에 있으며 1995년에 기공사 장쯔샹(張志祥)에 의해 '기장'(氣場)으로 인정돼 2002년과 2010년 TV에 나오면서 인기가 높아졌다.<sup>13</sup>

8 鎌田東二·津村喬 編, 『天河曼荼羅: 超宗教への水路(チャンネル)』, 11쪽.

9 *FiLi*, 増刊号, 1994, 광고란.

10 清田益章, 『発見! パワースポット』, 太田出版, 1991.

11 清田益章, 『発見! パワースポット』, 28~32쪽.

12 清田益章, 『発見! パワースポット』, 214~215쪽.

13 宮本高行, 『世界のパワースポット・分杭峠を100倍楽しむ本』, 学研, 2015, 11쪽.

### 3. 신사의 파워스팟: 이익을 둘러싼 양의성

2000년대 이후 일본의 파워스팟은 신사가 중심이 되며 이익이 강조된다. 신직(神職) 경험이 있고 영국 스피리추얼리즘을 배운 에하라 히로유키(江原啓之)<sup>14</sup>가 『스피리추얼 성지: 에하라 히로유키 신(神)기행』이라는 시리즈를 간행하여 일본의 다양한 신사를 소개했다. 본문 중 “스사(須佐) 신사는 영능력자 사이에서는 유명한 파워스팟”이라는 기술이 보인다.<sup>15</sup> 에하라는 2000년대에 일본에서 ‘스피리추얼 붐’을 불러일으켜 아우라, 전세(前世), 수호령 등 종래의 ‘정신세계’나 뉴에이지에서 유통되던 아이디어를 일반 대중이 받아들이기 쉽게 전달했다. 파워스팟도 그중 하나인데 에하라는 파워를 안이하게 획득하려는 자세를 비판하고 있다.

그저 파워스팟에 갔다고 파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지의 굉장한 에너지를 접함으로써 자신의 마음과 대면하여 부족한 점을 반성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고선 말이죠.<sup>16</sup>

에하라는 “진짜 이익은 자신을 재검토하는 시간”이라면서 현지에서의 내관(内觀)을 장려하며<sup>17</sup> ‘스피리추얼 성지’(Spiritual Sanctuary)가 관광지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며<sup>18</sup> 현세이익 중심의 신사참배와는 구별되는 스피리추얼 방문 형태를 확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에하라가 말하는 신사에서의 내관은 외견상으로는 단순한 기원과 구별되지 않는다. 실제 그의 ‘스피리추얼 성지’ 시리즈는 대중관광의 대상이 된 파워스팟 붐을 촉진시켰다. 에하라가 가장 먼저 소개한 스사 신사

14 Norichika Horie, “Spirituality and the Spiritual in Japan: Translation and Transformation,” *Journal of Alternative Spiritualities and New Age Studies* 5, 2009, 11.

15 江原啓之, 『スピリチュアル・サンクチュアリ: 江原啓之神紀行』, マガジンハウス, 2004, 9쪽.

16 江原啓之, 『スピリチュアル・サンクチュアリ: 江原啓之神紀行』, 77쪽.

17 江原啓之, 『スピリチュアル・サンクチュアリ: 江原啓之神紀行』, 82쪽.

18 江原啓之, 『スピリチュアル・サンクチュアリ: 江原啓之神紀行』, 9쪽.

에서는 본전을 참배하지 않고 큰 삼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는 많은 관광객에 신직이 곤혹스러워 할 정도였다.<sup>19</sup>

#### 4. 선행 연구 개관: 신기신앙에서의 일탈에 대한 비판

2009년 시마다 슈헤이가 메이지 신궁의 기요마사우물을 ‘파워스팟’으로 소개하면서 본격적인 붐이 시작된 것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다. 시마다는 전국의 파워스팟을 안내하는 가이드북을 썼는데 스피리추얼 성장을 중시하는 에하라와는 대조적으로 ‘개운’(開運)이라는 물질적 이익을 내세웠다. 도박운이나 금전운까지 상승한다고 주장하면서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sup>20</sup> 이 영향으로 파워스팟에 관한 연구가 얼마간 등장했다.

잡지 기사를 통해 기요마사우물 붐을 검토한 아마토 유타로(大和友大朗)에 따르면,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후에는 파워스팟 관련 기사가 줄고 ‘성지’라는 말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아마토는 미디어에서 영능력자의 설명이나 풍수이론에 의해 어떤 장소든 성지가 되기 때문에 신을 모시든 모시지 않든 상관없다고 본다.<sup>21</sup> 또 개운과 현세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풍수의 영향이라 본다. 파워스팟 붐은 신기신앙과 무관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싶은 듯하다.<sup>22</sup>

스가 나오코(菅直子)도 잡지 기사에 입각해 파워스팟 붐을 본래의 신사신앙에서 일탈한 것으로 본다. 스가에 따르면 파워스팟은 방문자인 ‘내’가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정화와 파워 충전을 가져다주는 ‘사적(私的) 성지’로 간주되고 있다고 한다.<sup>23</sup>

19 「パワースポット人気 県内神社 若者を魅了」, 『読売新聞(島根)』, 2010. 8. 21, 29쪽.

20 島田秀平, 『島田秀平と行く! 全国開運パワースポットガイド決定版!!』, 講談社, 2010.

21 大和友大朗, 「雑誌記事における明治神宮・清正井のパワースポット化の過程」, 101쪽.

22 大和友大朗, 「雑誌記事における明治神宮・清正井のパワースポット化の過程」, 96쪽.

23 菅直子, 「パワースポットとしての神社」, 石井研二 編, 『神道はどこへいくか』, 베리칸社, 2010, 232~252쪽, 249쪽.

오카모토 료스케(岡本亮輔)는 신전에서 배례하지 않고 경내의 파워스팟만 찾는 행위를 비판하는 논조를 소개하면서 종교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신사가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지적한다.<sup>24</sup>

이처럼 선행 연구는 파워스팟 붐을 진정한(본래의) 신기신앙에서의 일탈로 여긴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잡지나 TV 등의 매스컴 정보에 의거한 것으로, 실제 참배자를 조사한 결과는 아니다. 방문자와의 비공식 대화에서 필자가 들은 바에 한하면, 파워스팟을 의식하는 참배자일수록 “이익보다는 신에 대한 감사가 중요하다”는 등의 대답을 한다.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신도 승경에 가깝다.

한편, 현세이익과 신기신앙을 대비시키는 데는 의문이 가는 점이 있다. 파워스팟 붐 이전부터 일본의 신사는 현세이익을 내세워 참배객을 모으며 그 새전(賽錢)이나 봉납을 경영 기반으로 삼고 있다.<sup>25</sup> 또 신목(神木)이나 신수(神水), 암좌(巖座)에 대한 신앙은 메이지유신 이후에 배정된 제신에 대한 참배보다 신도의 본질에 가깝다는, 앞서 언급한 가마다와 같은 견해도 있다. 필자의 이전 논고에서도 지적했지만 적지 않은 신사가 자연숭배야말로 신도의 핵심이라 여기며 파워스팟 탐방자를 환영하고 있다.

신기신앙과 자연숭배와 현실이익은 이처럼 신사에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지역공동체의 산토신(産土神) 제사가 신사의 본래 취지라는 입장에서 파워스팟 탐방을 비판할 것이라면, 멀리서 찾아오는 유명 신사 참배는 에도시대에 이미 본격화되었고 파워스팟 붐 이전부터 대중관광에 개방되어 온 점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가 본래의 신도에서 일탈한 것이라는 비판은 신기신앙을 신도의 본질로 여기는 특정 입장에 선 비판이라 하겠다.

24 岡本亮輔, 「非日常化する伝統宗教と我々の宗教心の行方: スピリチュアル, パワースポットとメディア」, 『中央公論』, 2015. 5, 42~49쪽.

25 Ian Reader and George J. Tanabe, Jr, *Practically Religious: Worldly Benefits and the Common Religion of Japan*,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8.

## 5. 파워스팟 효과의 유형론 관련 블로그 수집

이 글에서는 잡지나 서적이 아닌, 실제로 파워스팟을 방문한 사람들의 후기, 구체적으로는 인터넷상의 개인 블로그를 조사 대상으로 비교적 완성도 있는 체험담을 검토한다. 시기는 파워스팟 붐이 절정이던 2009년부터 2010년까지로 한다. 2011년을 지나면 블로그 형태의 광고만 검색되어 개인의 체험담 검색은 어려워진다. 검색은 대표적인 10대 블로그사이트에서 ‘파워스팟’을 제목에 포함하고 글자 수가 비교적 많은 글로, 실제 방문한 기록을 검색 상위부터 하나씩 찾았다(이하 ‘대상블로그’로 표기). 하나씩으로 한 것은 동일 작성자의 것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블로그사이트는 Yahoo! 블로그, FC2블로그, seesaa블로그, 코코로그, 아메바블로그, livedoor블로그, yaplog!, goo블로그, 하테나다이어리, BIGLOBE웹브리블로그다. Google에서 ‘site:【블로그사이트의 URL 일부】intitle: 파워스팟’이라는 검색식을 사용하였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로 기간을 지정했다.

파워스팟 효과는 누구나 느끼는 것, 특수한 사람이 느끼는 것, 그 자리에서는 느낄 수 없는 현세이익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효과는 물리적·신체적 감각과 기분 변화 등의 심리적 효과로 나뉜다. 특수한 사람이 느끼는 효과는 영능력 등에 의한 초감각적 지각이므로 초심리적 효과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1) 신체적 효과, (2) 심리적 효과, (3) 초심리적 효과, (4) 현세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기사에서 찾아내 정리한 것이 <표 1>이다.<sup>26</sup>

26 검색일은 2017년 12월 7일부터 15일에 걸쳐 했으며 최종 검색일은 2017년 12월 15일이다. 이하는 그 출전이다. 1: JACK, 「パワースポットシリーズ!稲荷鬼王神社!」, 2010. 7. 25, <https://blogs.yahoo.co.jp/otabe017/34362744.html>. 2: ヤヅ★, 「百間滝」, 2009. 12. 20, <http://aioi.blog6.c2.com/blog-entry-1341.html>. 3: コーヒー親父, 「カルフォルニアのパワースポット」, 2009. 7. 19, <http://primusyokoteten.seesaa.net/article/169256665.html>. 4: 辻褃正志, 「日光三依のパワースポット・磁気の森 湧水庵」, 2009. 7. 19, <http://fifabakutyouou.cocolog-nifty.com/nikkousannsou/2009/07/post-4ac2.html>. 5: 奥原朱麗, 「パワースポット 日光 その1 ~滝尾神社~」, 2010. 5. 22, <https://ameblo.jp/shuri-11556/entry-10541708970.html>. 6: JPSC, 「戸隠探訪」, 2010. 10. 23, [http://blog.livedoor.jp/jpsc/archives/cat\\_50043720.html](http://blog.livedoor.jp/jpsc/archives/cat_50043720.html). 7: エマ, 「スピリチュアル?」, 2010. 5. 22, [http://yaplog.jp/k-silver\\_bells/archive/369](http://yaplog.jp/k-silver_bells/archive/369). 8: 釣り三昧日記, 「究極のパワースポット! 高森の上色見熊野座神社に行き

〈표 1〉 파워스팟 방문 후기 조사 대상 개인 블로그

번호	장소	신체적 효과	심리적 효과	초심리적 효과
1	이나리오 (稲荷鬼王)신사 [도쿄(東京)도]	(사진)이 흐릿해져서...파워가 강한 곳이라는 증거, (수금굴의) 청명한 음색, 사람도 없다.	부름 받아서, 적당한, 치유돼요	완전 신비함, 영감이 없음에도 뭔가를 느낀다, 무서운 느낌
2	호라이(鳳來)산 도쇼(東照)궁 핫켄(百間)폭포[아이치(愛知)현]	자연방사선의 호르미시스 효과, 폭포수 밑 웅덩이에서 바람이 올라온다(기와 관련), 사진에 오브(orb), 신 문양 오브, 썰렁한 느낌		기공, 기의 파워, 영기, 파동에 둔감, 남쪽 사면에서 바라보게 되어 있어 '양기'가 있다. 북쪽 폭포수가 떨어지는 웅덩이 아래는 음기, 기장욕(氣場浴)
3	요세미테국립공원 (캘리포니아 주)	맑은 공기, (경관의) 절묘한 균형, 새벽녘, 쌀쌀하다	치유된다, 감개무량	정말로 힘이 들어온다
4	유스이(湧水)암 [도치기(栃木)현]	지하수, 물의 단맛, 커피의 부드러움, 5,000가우스 이상의 암반 자기, 다우징이 돈다, 풍경	고맙다, 신비한 곳	자력수(磁力水)
5	다키노오(滝尾)신사 (도치기현)	상쾌하다, 사진 속 바위 모양이 고승 같은 모습	부름 받아서, 기분이 좋다	독특한 기, 정화, 특이한 에너지, 6구의 불상이 보였다, 손이 찌르르한다, 무거운 기
6	도가쿠시(戸隠)신사 [나가노(長野)현]	공기가 맑다, 산길은 아름답고, 나무 사이로 햇빛을 느끼면서 산 전체에서 나오는 파워를 흡수, 니란히 선 세 그루 삼나무의 위압감	기분이 좋다, 즐거운 곳은 아니나 신비한 곳	파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힘을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기분 탓은 아니다
7	쓰바키오카미야시로 (樫大神社)[미에(三重)현]	밝은 신사, 관광객이 많아 북적임, 신사 관계자 분이 모두 인사해주었다	편안하다, 온화한 기분, 절로 미소가 난다, 신비함	두통과 어깨결림이 경내를 걷는 동안 사라졌다, 힐링
8	가미시킴이쿠마노이마스(上色見熊野座)신사[구마모토(熊本)현]	긴 참배길에서 빨려들어갈 듯한, 가파른 언덕이 거부하려는 듯한 느낌, 100개 가까운 석등통이 장관, 접근을 거부하듯 정연, 아침 해가 눈부시다, 몸이 식다, 스케일의 장대함	사람을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신성함, 쉬~익 하고 바람에 신체가 감싸이는 듯한 감각, 오길 잘했어요	
9	도도로키(等々力)계곡(도쿄도)	조용, 향 냄새, 강물, 마이너스 이온, 썰렁한 공기, 폭포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위기	
10	덴카와(天河)신사 [나라(奈良)현]	온화하고 부드러운 공기가 감돈다	묘하게 안정된다, 기타로(喜多郎)의 곡 덕분에 눈물이 흐른다	덴카와의 신으로부터 '조용하게 오세요'라는 방문 전 메시지, 영능력 있는 아이가 "제단 공물 앞에 신이 서서 지긋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라고 한다, 다른 아이한테도 머리 긴 여신이 쳐다보고 있는 게 보이고 "잘 있었니?" 하는 말을 듣는다

현세이억	작성자	제목	날짜	링크
개구리돌	JACK	파워스팟 시리즈! 이나리키오(稲荷鬼王)신사!	2010. 7. 25	<a href="https://blogs.yahoo.co.jp/otabe017/34362744.html">https://blogs.yahoo.co.jp/otabe017/34362744.html</a>
	얏즈★	햏켄폭포	2009. 12. 20	<a href="http://aioi.blog6.fc2.com/blog-entry-1341.html">http://aioi.blog6.fc2.com/blog-entry-1341.html</a>
	커피 아버지	캘리포니아의 파워스팟	2009. 7. 19	<a href="http://primusyokoteten.seesaa.net/article/169256665.html">http://primusyokoteten.seesaa.net/article/169256665.html</a>
체질 개선(병 치유), 우연히 만난 여성의 기적적인 치유,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쓰지쓰마 마사시 (辻棲正志)	닛코(日光) 미요리(三依)의 파워스팟·자기의 숲 유스이암	2009. 7. 19	<a href="http://fifabakutyouou.cocolog-nifty.com/nikkousanssou/2009/07/post-4ac2.html">http://fifabakutyouou.cocolog-nifty.com/nikkousanssou/2009/07/post-4ac2.html</a>
제신, 이익, 인연, 아이 점지, 육아, 운수를 시험하는 도리이(鳥居)	오쿠하라 슈리 (奥原朱麗)	파워스팟 닛코(1)~ 다키노오(滝尾)신사~	2010. 5. 22	<a href="https://ameblo.jp/shuri-11556/entry-10541708970.html">https://ameblo.jp/shuri-11556/entry-10541708970.html</a>
	JPSC	도가쿠시 탐방	2010. 10. 23	<a href="http://blog.livedoor.jp/jpsc/archives/cat_50043720.html">http://blog.livedoor.jp/jpsc/archives/cat_50043720.html</a>
연애·일·건강·결혼·가정 운, 동백 모양의 길흉제비 (おみくじ), 폭포 사진을 대기화면으로 설정하면 연 애운 업	에마	스피리추얼?	2010. 5. 22	<a href="http://yaplog.jp/k-silver_bells/archive/369">http://yaplog.jp/k-silver_bells/archive/369</a>
	늬시삼매경일기	최고의 파워스팟! 다카모리(高森)의 가미시키미 쿠마노이마스 신사에 갔어요	2010. 9. 29	<a href="http://blog.goo.ne.jp/kumamoto-amakusa/e/e37c9847f5daecb36b1e935dec259b1d">http://blog.goo.ne.jp/kumamoto-amakusa/e/e37c9847f5daecb36b1e935dec259b1d</a>
	sinkanJko	파워스팟~도도로키 계곡~	2010. 2. 23	<a href="http://d.hatena.ne.jp/sinkanJko/20100223">http://d.hatena.ne.jp/sinkanJko/20100223</a>
참가자 한 명이 고장난 워 크맨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리를 맡겼더니 고 쳐져 있었다	미라이(美来)	제2회 파워스팟 투어: '덴카와신사' 후기	2010. 3. 18	<a href="http://uchu.at.webry.info/201003/article_2.html">http://uchu.at.webry.info/201003/article_2.html</a>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현세이익을 언급하고 있는 블로그는 10개 중 4개뿐이다. 그마저도 소문에 관한 언급일 뿐 현세이익이 방문 목적은 아니다. 또한 실제 현세이익을 기록한 것은 b10(표의 10번째 블로그를 가리킨다. 이하, 블로그 참조 시에는 표 안의 번호를 사용해 b1, b2 등으로 표기)뿐이었다. 신체적 효과와 심리적 효과는 10개 블로그 모두에서, 초심리적 효과는 8개 블로그에서 실제 체험 후기를 적고 있다.

이 네 가지 효과를 내용에 따라 좀 더 분류해볼 것이다. 사례를 보충할 경우에는 기간 지정과 사이트 지정을 하지 않고 특징적인 키워드로 블로그를 검색한다(이하, '보충블로그'로 표기). Google에서 검색식은 'blog intitle: 파워스팟【키워드】'이다(이하, '키워드'로 표기).<sup>27</sup>

참조한 블로그가 실제 체험을 기록한 것인지 과장한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설령 과장이라 하더라도 작성자가 파워스팟 효과의 전형적 표현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면 키워드 추출 목적에는 부합할 것이다.

## 1) 누구나 느끼는 물리적·신체적 효과

### (1) 물에 관한 것: 치유 에너지

〈강물소리〉나 〈폭포〉, 〈약수〉는 파워스팟에 부수하는 경우가 많다(〈 〉 안은 표로 정리한 블로그에 나오는 말). 이들에게 유래하는 습기는 〈마이너스 이온〉 등으로 표현된다. 마이너스 이온은 공기중의 물이나 산소 분자 등에서 마이너스 전기를 띤 것이다. 습기가 많은 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다. 물 있는 곳 특유의 〈썰렁한 공기〉로도 느껴진다(b2, 9). 다음은 '마이너스 이온'을 키워드로 한 보충블로그다. 장소는 나치(那智)폭포이며 폭포에서 합장하고 있는 인물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ました」, 2010. 9. 29, <http://blog.goo.ne.jp/kumamoto-amakusa/e/e37c9847f5daecb36b1e935dec259b1d>. 9: sinkanJko, 「パワースポット〜等々力溪谷〜」, 2010. 2. 23, <http://d.hatena.ne.jp/sinkanJko/20100223>. 10: 美来, 「第二回パワースポットツア: 「天河神社」の報告」, 2010. 3. 18, [http://uchu.at.webry.info/201003/article\\_2.html](http://uchu.at.webry.info/201003/article_2.html).

27 이하, 인용문에서는 줄바꾸기를 생략하고 구두점을 보완하며 특수기호를 삭제한다.

여기까지 오면 공기는 더욱 쉼렁하다. 구마노고도(熊野古道)보다 마이너스 이온과 치유 파워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 여기가 폭포에 가장 가까운 장소. 여기까지 오면 마이너스 이온이 듬뿍, 힐링돼요. 아니 여기까지 오면 파워스폿으로 불리는 이유를 알 것 같은 느낌이에요.<sup>28</sup>

약수는 마실 수 있는 경우 맛있다는 점이 강조된다(b4). 페트병에 담아가거나 마시거나 몸에 묻히는 데 이용된다. 이처럼 파워스폿에 유래하는 물에는 치유 효과가 기대된다.

## (2) 빛(일광)에 관한 것, 빛을 등 뒤로 한 나무: 생명력

태양이 비치는 산의 사면(斜面),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은 빛 에너지를 지닌다고 여기고 있다.

햇켄폭포의 경우는 남쪽 사면에서 바라보게 되므로 ‘양기’가 있는 것 같아요.(b2)

나무들 사이로 보였다 사라졌다 하는 햇빛을 느끼면서 분명 이 산 전체에서 발산되는 파워를 흡수하는 거구나 싶었다.(b6)

다음은 ‘태양’을 키워드로 한 보충블로그이고 장소는 구라마사(鞍馬寺)다. 참배길은 동남향 사면으로, 투고자는 역광의 신목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우리는 사랑과 빛과 힘에 의해 살아간다. … 참배길은 정화의 길. 태양 빛, 나무들의 초록빛, 물소리나 새소리. 나는 나무 에너지를 좋아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sup>29</sup>

28 キートス・メルシー, 「癒しを求めて~熊野古道と那智の滝~パワースポットでマイナスイオン」, 2008. 10. 25, <https://4travel.jp/travelogue/10283144>.

29 turuhime\_0, 「鞍馬山①」, 2010. 3. 28, <http://peace345.blog.so-net.ne.jp/2010-03-28>

빛으로 가득한 파워스팟은 식물을 자라게 하는 일광을 연상시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여긴다. <새벽녘>의 <아침 해>에도 큰 힘이 느껴진다(b3, 8).

### (3) 공기·습도·바람에 관한 것: 기와 신의 소재

물 있는 곳은 습기가 많으므로 <썰렁>하게 느껴진다(b1, 8, 9). 반대로 일광이 비치는 장소는 따스하게 느껴진다. 파워스팟에서는 이 둘이 섞여 있어 체감 온도가 장소에 따라 다르다. 그것이 장소 고유의 에너지가 있다는 감각을 가져다준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공기> 등으로 표현된다(b10). 바람도 체감 온도를 좌우한다. 통풍이 좋은 곳으로 가면 <상쾌하다>, <공기가 맑다>고 느낀다.

여기 서면 구멍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쉬~익 하고 신체가 감싸이는 듯한 감각을 느껴요. 언덕을 올라온 몸이 거짓말처럼 식어요. 오길 잘했어요.(b8)

이 ‘기’ 마크 앞에 서면 영기(靈氣)가 뽁뽁 하고 와요. 이렇게 기를 느낀 적은 없어요. 하긴 이게 진짜 기인지 아님 단순히 불어내린 바람이 폭포수 밑 웅덩이에 서 위로 올라온 것뿐인지 … 분간은 안 되지만요,,,,,(땀).(b2)

이처럼 공기의 습도, 습기, 닿는 강도가 ‘영기’, 영적 의미의 ‘기’를 느낀다는 자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기’를 감지하고 있다고 확신 있게 주장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바람을 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다음은 ‘바람이 불어온다’를 키워드로 한 보충블로그이며 장소는 하코네의 구즈류(九頭龍)신사다.

그때, “취~익 취~익!” 하며 뭔가 소리가 났습니다. 앗! 용신님이다! 용신님 울음소리가 분명해! 그렇게 생각하며 용신님을 찾으니 그 소리는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들이 서로 비비며 내는 소리란 걸 알았습니다. 과연 나무들과 바람을 이용해 용신님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려준 거네요.<sup>30</sup>

#### (4) 자연의 소리: 〈조용함〉을 부각시키는 바람과 물소리

위 글은 바람소리를 용신의 울음소리로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강한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불어 소리가 난다는 것도 작성자는 알고 있다. 이처럼 파워스팟에 관한 기록은 메타포로 넘친다. 앞서 인용한 b2도 폭포수 밑 웅덩이에서 올라오는 바람을 “영기가 뽕뽕하며 와요”라며 메타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소리는 바람뿐 아니라 수금굴(水琴窟)의 〈청명한 음색〉(b1), 〈강물소리〉(b9) 등 물과도 관련된다.

일요일이라는데 정말 조용. 아무도 없어요. ... 강물소리에 시내의 시끄러운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b9)

물소리를 느끼기 위해서는 〈조용함〉도 필요하다. 물소리는 그 장소가 조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바람소리가 느껴지는 것도 그곳이 시내의 시끄러움과 떨어진 장소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소리와 〈마음 편안해지는〉 조용한 장소는 불가분의 관계다. 반대로 〈관광객이 많아 북적〉인다는 내용도 있다.

어라? 여긴 관광지? 뭐든 상관없지만. 인연 점지(縁結び)로 유명해서 여자애들 그롭도 엄청 많았어요.☆(미디어의 힘, 무섭다.....) 원래 밝은 신사라 엄숙한 분위기보다도 북적여서(쓴웃음) 그래도 멋진 곳이에요.(b7)

작성자는 신사가 관광지로 북적이게 된 것에 ‘쓴웃음’을 짓지만 사람이 모이는 것도 〈인연 점지〉 파워의 증거라며 재해석한다. 그렇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조용함〉을 파워스팟에 기대했던 것 같다.

30 達人tabi, 「日本一のパワースポット? 富士山と芦ノ湖と箱根神社と九頭龍神社!」, 2017. 4. 22, <http://happy-rich.jp/wp/nihonichipowerspot/>

(5) 압도적인 풍경: 인간을 넘어선 자연의 파워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에서 인간을 넘어선 자연의 압도적인 파워가 느껴진다. 이는 국내보다도 해외 파워스팟 감상에서 자주 발견된다. 사진이 첨부된 게시글이 많다.

치유의 공간,,,,, 파워스팟이라 해야 할까요. 진짜 완전 힐링되거든요. [사진] 푸른 하늘과 삼림. [사진] 강. [사진] 하프돔. [사진] 큰 바위. [사진] 폭포. [사진] 그리고 그것들의 절묘한 균형이 정말 아름다워요.(b3)

중사(中社) 가까이에 나란히 선 삼나무 세 그루. 고목(굵은 나무)은 그 자체만으로 위압감 있어요.(b6)

다음 글은 ‘광경’을 키워드로 한 보충블로그이고 장소는 미국의 세도나이다.

오크 크릭(Oak Creek)에서의 저녁놀은 마치 천사가 내려앉은 종교화 한 장을 보고 있는 듯한 광경이어서 그저 넋을 잃고 보고 있었어요.<sup>31</sup>

또 신사의 인공물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 경관도 <빨려들어간다>, <저지하려는 느낌> 등의 독특한 인상을 주어 그 저편에 신적인 파워를 느끼게 한다.(b8)

(6) 사진에 찍힌 ‘신비한 빛’(렌즈플레어, 고스트, 오브): 파워의 인상과 기록 역광으로 사진을 찍으면 빛이 렌즈 면이나 경통 안에서 반사해 방사상으로 퍼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렌즈플레어(lens flare)라 한다. 특히 조리개 부근에서 반사시켜 조여든 모양의 작은 원이 광원과 점대칭으로 찍히는 경우는 고스트(ghost)라 부른다. 이들을 ‘신비한 빛’이라 하며 파워스팟 특유의 것으로

31 てんてん@, 「パワースポットセドナ」, 2005. 9. 3~4, <https://4travel.jp/travelogue/10040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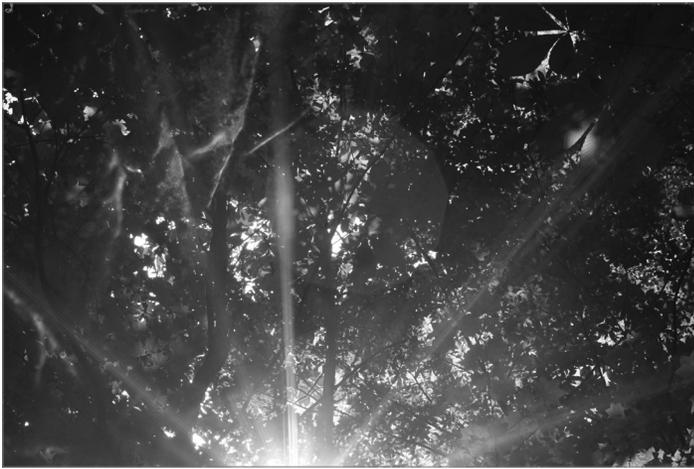
보는 기술을 자주 보게 된다.

[사진]역시 흐릿해지는군요... 엄청난 파워를 느꼈어요~.(b1)

흘날리는 물방울에 의한 헐레이션(halation)인지도 모르지만 뭔가 하얗고 둥그란 것이 찍혀 있어요. 다만, 태양광이 물방울이나 폭포를 흐르는 물에 반사시켜 생기는 헐레이션(별칭 렌즈플레어)의 경우는 빛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처럼 빨강~자색으로 분광화된 광륜이 찍히는데 흰색인 것은 분광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진] 이게 오브(orb)라는 걸까요? ...[독자 댓글에 대한 답글로-필자]고맙습니다, 이 오브는 '신(神) 문양 오브'라 불리는 것 같네요.(b2)

‘오브’라는 것은 하얗고 둥글며 비교적 작지만 중앙에 문양 같은 것이 보이는 것이다. 플래쉬 촬영을 하면 찍히고 일반적으로는 공중의 물방울이나 먼지가 반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성자도 “흘날리는 물방울에 의한 헐레이션”이라 기록한 것을 보면 광학적인 설명을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통상의 렌즈플레어와 다른 신비한 현상이라고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필자가 2016년 6월 14일에 분구이고개를 방문했을 때에는, 약수(湧水)를 파는 가게에 방문자가 찍은 ‘신비한 사진’을 전시하는 게시판이 있었다(그림 1). 가게 주인에게 필자가 촬영한 유사한 사진(그림 2)을 보여주자 잘 찍었다고 칭찬하며 보내주면 전시하고 싶다고 했다. 가까이서 보는 한 렌즈플레어나 고스트류의 사진뿐이었다. 필자도 핀트나 조리개를 조절해서 ‘신비한 빛’의 형상이나 크기가 변하는 것을 모니터로 확인한다. 하지만 드라마틱한 빛을 찍기 위해서는 공리를 해야 해서 정신없이 촬영에 집중했다. 분구이고개의 촬영자들이나 가게 주인도 광학적 설명이 가능하나 자신이 느낀 파워의 기록으로서 사진을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는 듯하다.



〈그림 1〉 약수 판매점(분구이교개) 내부 사진 게시판. 필자 촬영(위)  
 〈그림 2〉 '신비한 사진'(분구이교개). 필자 촬영(아래)

### 메타포의 효용

이상과 같이 많은 보고자는 특별한 영(靈)능력 없이도 물, 빛, 바람, 소리, 풍경, 사진 등에서 '파워'를 느낀다. 그것들이 물리적 자극에서 유래하는 신체적 감각임은 알고 있다. 그러나 파워스팟 후기라고 하는 이야기 형식에서, 예를 들면 빛을 “영기가 웅웅 하고 와요”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다. 그 앞뒤로는 단순히 바람이라고 인정하는 기술도 첨가된다. 즉 메타포나 언어유희라는 걸 자각하고 있으며 그것을 독자에게도 시사한다. 그로 인한 이점은 (1) 종교처럼 자신의 신념을 독자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 (2) 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를 즐겁게 한다, (3) 물리적 자극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누구나 느낄 수 있다며 독자를 기대하게 만든다, 라는 데 있다. 파워스팟이 매스컴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와 같은 메타포적 표현의 입소문이 많은 사람을 파워스팟으로 동원해왔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 자연방사선의 ‘호르미시스(hormesis) 효과’ (b2), “5천 가우스 이상의 암반 자기”(b4) 등, 계측되는 것을 예로 들며 파워의 존재를 시사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신체적 감각의 범주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 2) 누구나 느끼기 쉬운 심리적 효과

여기서부터는 파워스팟에서 느끼는 인상에 의거해 많은 사람이 체험 가능한 심리상태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 (1) 진정작용

〈치유된다〉(b1, 3)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효과다.

여기도 진짜 아름다운 음색이에요! 치유돼요~.(b1)

치유 공간,,,,, 파워스팟이라는 건가요, 정말이지 진짜 치유되거든요.(b3)

여기서의 〈치유된다〉는 병이 낫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b1은 소리, b3은 풍경과 관계가 있으며, 그밖의 〈기분이 좋다·편안하다〉(b5, 6, 7), 〈진정된다·편안해진다〉(b9, 10), 〈온화한 기분〉(b7) 등의 표현과 거의 같아 진정작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다음 제시글은 ‘안정되다’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보충블로그이며 장소는 메구로부동존(目黒不動尊=瀧泉寺)이다.

처음 찾았을 때는 전신에 찌르르한 느낌이 퍼져,,, 시내에 이런 위대한 파워스팟이 있나 하고 감탄했어요. 정적에 싸여,,, 자비심 깊은 온화함과 산뜻한 공기가 넘쳐,,, 그저 거기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진정되고,,,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공간 메구로부동존. 마음이 씻기는 파워스팟이에요.<sup>32</sup>

이 사례에서는 정숙함, 산뜻한 공기의 신체적 효과, 찌르르한 느낌이라는 초심리적 효과가 ‘온화함’, ‘마음이 진정된다’, ‘마음이 씻긴다’는 진정작용과 연결되어 있다. 진정작용은 파워스팟 효과 중에서도 중심적인 것이라 하겠다.

## (2) 각성작용

‘파워스팟’은 파워를 얻을 수 있는 장소다. 실제로 많은 블로그는 고양감 넘치는 문체로 적혀 있다. 따라서 심리적 효과로서는 진정작용보다도 각성작용이 중심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분석의 틀에서는 비가시적 파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초심리적 효과로 범주화되는 표현이 많았다. 심리적 각성작용을 보여주는 표현으로서는 <감개무량>(b3), <절로 미소가 난다>(b7) 등이 있었다. 아래 글에서는 ‘힘을 얻었다’라는 말을 키워드로 한 보충블로그다. 장소는 확실치 않으나 신사 경내의 거목이 파워스팟화되었다고 한다. 작성자는 일하는 데 필요한 ‘파워’를 갈구하여 방문해서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최강 파워스팟의 힘을 얻으러 왔습니다. ... 강한 결의와 뜨거운 열정을 마음에 품고 왔어요. 여기 오면 반드시 파워를 얻게 돼요. ... ‘신목에 기도하다’ [나무에 머리를 대는 사진] 뜨거운 열정이 하염없이 넘쳐. [나무를 두 손으로 부둥켜안는 사진] ‘신목에 울며 매달리다’ ㅎㅎ ... 일 년 반 만에 파워를 얻었어요. 내일부터 필사적으로 열심히 살 겁니다!!!<sup>33</sup>

## (3) ‘신비’한 느낌

이번 대상블로그에서는 <신비함>(b2, 4, 6, 7)이라는 표현이 많이 보였다. 그 대상은 잡다하여 오브(b2), 다우징이 돌고, 약수를 이용한 커피가 쓰지 않다

32 luz de la luna, 「“目黒不動尊”, ~パワースポット~」, 2017. 5. 3, <http://blog.luzdelaluna.jp/?eid=982>

33 シクラメン, 「パワースポット」, 2015. 1. 18, <https://ameblo.jp/shikura/entry-11978913100.html>

(b4), 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b6), 견고 있을 뿐인데 미소가 나온다 (b7) 등이 있다. 파워스팟은 다종다양한 <신비함>이 일어나는 장소로 인지되고 있다.

한편, b8은 <사람을 범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신성함>을 강조하며 단순히 신비로운 기분이 아니라 외경심도 보여준다. '외경'을 키워드로 하는 보충블로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을 볼 수 있었다. 언급되어 있는 것은 이세(伊勢)신궁과 수험도(修験道)의 3대 영산이다.

저 정숙하면서도 장엄한 분위기, 뭔가 성스러운 것이 존재하는 것 같은 외경심에 사로잡혔어요. ... 헤아릴 수 없는 힘을 지닌 자연에 대해 외경하고 공경한다는 것이 고래 일본인의 종교관, 말하자면 신도이며 그것은 수험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 외경하고 공경하거나 아니면 엄격한 수행도 없이 그저 이런 땅을 찾는 것만으로 그러한 자연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애당초 있을 수 없어요.<sup>34</sup>

작성자는 신도나 수험도에 사상적으로 경도되어 자연신에 대한 외경, 수행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진정효과 항목에서 보았듯, 파워스팟 탐방자는 휴식을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 받고 있다. 그들의 일반적인 기분은 신에 대한 외경보다도 친밀함인 듯 보인다.

#### (4) '부름 받았다'는 느낌: 우연에 의해 가능해진 방문

파워스팟으로의 접근성과 관련된 것이 장소로부터 <부름 받았다>고 하는 관념이다.

34 ねずみ男, 「神社は安易なパワースポットではない…、としたら?」, 2011. 10. 6, <https://blogs.yahoo.co.jp/ueda9162/65150615.html>

와~! 여기에도 후지(富士)층(후지신앙에 의거해 그 신자들이 후지산을 모방해 만든 인공 산-옴긴이)이 있어요! 어제도 후지층과 마주쳤는데요... … 어쩐지 부름 받은 것 같네요~~.(b1)

‘부름 받았다’를 키워드로 하는 보충블로그를 찾는 과정에서, 나라현 오미와(大神)신사가 있는 미와(三輪)산은 부름 받지 않으면 등정이 불가능한 파워스팟으로 평판을 쌓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급한 용무나 기후 악화, 병이나 부상으로 예정이 취소된대요.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밖에 입산하지 못하는 산이라는대요. … 그런데 미와산 등배(登拜)는 [사진], 태풍의 영향으로 입산금지였어요. 아~부르신 게 아니었네요.<sup>35</sup>

오미와신사는 미와산을 신체(神体)로 하며 본전은 없고 배전(拜殿, 참배객들이 절하는 장소) 깊숙한 곳은 산 그대로다. 신체산(神体山)은 신궁 안에서 누구도 발을 디더서는 안 되는 금족지(禁足地)지만 참배길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영산(靈山)의 신덕(神德)을 배례하며 산을 오르는 등배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접수시간이 짧고 날씨가 나쁘면 입산이 금지된다(필자도 오전 중에 참배하고자 방문했지만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오후 일정을 우선하느라 등배를 단념했다).

또한 파워스팟 붐은 정보 유통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정보를 얻어 그곳에 이른 사람은 그것을 ‘우연’과 인연에 의해 가능해졌다고 생각하며 그 배후에 신비한 힘을 느낀다. 다음 글은 ‘우연’을 키워드로 한 보충블로그이며 장소는 오이와(御岩)신사다.

최근 남편은 일 때문에 심신이 모두 지쳤는데 이럴 때 파워스팟 얘기[오이와신사

35 あんさん, 「日本最大のパワースポット三輪山へ」, 2017. 11. 3, <https://ameblo.jp/aroundfifty50/entry-12325354358.html>

의 명성—필재를 우연히 들었고 거기다 자기와 맞는 스폿이라니까... 그렇다면 찾아가야 할 때구나 싶어 오늘 갔던 거죠. 역시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찾아보고 안 게 아닌데 봄, 가을로 이틀씩만 열린다는 【회향제(回向祭)】라는 축제날이었어요.<sup>36</sup>

이 작성자는 생일에서 비롯한 남편의 속성과 파워스팟의 속성이 같아 궁합이 맞다는 것을 알고 현지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특별한 축제와 조우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 모두를 신비한 우연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파워스팟 방문은 장소와의 특별한 인연과 그 배후의 의지—부르거나 거부하는—를 인식시켜주는 이야기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3) 특수한 사람이 느끼는 초심리적 효과

이상은 장소에 관한 인상으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심리적 효과다. 하지만 장소의 인상을 초감각적 지각을 통해 얻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다. 다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파워를 완전히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소의 인상을 메타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

#### (1) 전자파와 에너지의 메타포: '파동'을 느낀다, 찌르르하다

파워스팟의 정의에 따르면 <파워> <힘>이 감지되는 장소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블로그는 많다(b1, 2, 3, 6, 10). 관련어로서는 기·영기(b2, 5), 자기·자력(b2, 4), 에너지(b5, 10), 파동(b2), 찌르르(b5) 등이 있다. 이들 단어와의 관련에서 탐방자들은 <파워>를 전자파의 메타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기>는 영혼이나 신령을 상상케 하는데 그 작용을 미치게 하는 구조도 전자파가 전달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빛은 어떠한 매개물에 의한 파동이라는 파동설이 확립되어 있다. 또한 에너지 개념은 역학적 일을 하는 능력뿐 아니라 열·빛·전자기·질

36 ko\_o\_jy, 「パワースポット 御岩神社へ」, 2017. 4. 17, <http://kooly.blog.jp/archives/14655463.html>

량 등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모든 현상을 ‘에너지’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나무가 지닌 에너지로 힘이 났다”는 표현은 물리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과학적으로는 옳지 않다.

마찬가지로 파워스팟에서 ‘에너지’가 발산되어 느낄 수 있다는 신념은 의사과학에 가깝다. 하지만 빛·물·습도·바람·소리에 의한 신체감각이나 심리적 인상을 자세한 설명을 축약해서 에너지라는 메타포로 설명하는 것은, 그것이 메타포라는 상호이해가 있다면 무의미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단 에너지가 신이나 정령으로부터 실제로 발산된다는 설명이라면 실증하기 어려운 곤란한 존재를 원인으로 한 초심리적 효과를 주장하는 것이 된다. 메타포인지 문자 그대로의 현실인지를 모호하게 하면서 파워스팟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성립하고 있다. 이것이 파워스팟 언설의 특징이다.

아래 글은 ‘찌르르’(ビリビリ)를 키워드로 검색한 보충블로그이고, 장소는 하와이의 오아후(Oahu) 섬이다.

영감은 전혀 없고 굳이 말하자면 둔감한 편. 파워를 느낄 수 있을지 반신반의였는데요... 굉장해요. 찌르르 느껴요. ... [사진] 와히아와(Wahiawa) 버스스톤(Birthstones). 마침 나무가 밀집한 부근에 돌이 둥굴고 있어요. 그곳을 향하는 도중부터 이미 찌르르하며 굉장한 힘을 느껴어요.<sup>37</sup>

투고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영감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파워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체적 효과나 심리적 효과와는 다른 초심리적 효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필자는 초심리적 효과 유무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방문자 사이에서 그것이 믿어지고 있음을 제시할 뿐이다).

37 Moreska, 「オアフ島パワースポット巡り」, 2010. 2. 20, <https://4travel.jp/travelogue/10433021>

다음 글은 ‘파동’을 키워드로 한 것이다. 장소는 이세신궁의 내궁 안에 있는 ‘아라마쓰리(荒祭)궁’이다.

이 화살표[아라마쓰리궁이라고 적힌 방향을 가리키는 간판의—필자]가 나오고부터 숨이 막혀 와요. 벌써 에너지가 너무나 강해서 어쩔해요. 정말이지 저는 에너지가 센 곳에 가면 눈 속 깊어서부터 핑 돌기 시작해 전신이 어떨어떨해지거든요. [사진] 꼭 가 보세요. 이곳은 완전 파워풀!!! [사진] 제 파동이 단숨에 오르는 느낌이에요.<sup>38</sup>

## (2) 부정적 반응: 정화, 디톡스, 호전반응으로서의 고통

위의 인용문에는 숨이 막힌다거나 어쩔하다는 부정적 효과가 보인다. 이에 관하여 작성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높은 파동의 에너지(힐링)를 쬐면 먼저 부정적인 것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 요. 디톡스라는 정화 말이에요. 플러스 에너지를 쬐면 자기 안에 쌓여 있던(자연스럽게 축적된) 부정적인 에너지가 밀려나와 잠시 동안 부정적인 느낌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플러스가 되어 힘이 생기죠.<sup>39</sup>

이처럼 높은 파동 에너지에 의해 자기 내부의 독소가 표면화하여 디톡스(해독)된다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실은 정화작용이라고 하는 설명은 기 치료 같은 힐링을 행하는 사람에게서 보인다. 투고자도 스스로를 ‘스피리추얼 테라피스트’라 칭하고 있다. 기공을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호전반응’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된다. 이는 ‘신체적 효과’에 포함해도 좋겠지만, 기분을 나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강한 ‘에너지’를 느꼈다는 주장이

38 礎のりこ, 「波動が一気に上る°道を拓く開運パワースポット」, 2017. 10. 2, <https://ameblo.jp/noriko-happy-life/entry-12315733082.html>

39 礎のりこ, 「高い波動のエネルギーやパワースポットに行くと起こること」, 2017. 10. 14, <https://ameblo.jp/noriko-happy-life/entry-12319450919.html>

므로 초심리적 효과에 넣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은 나쁜 영적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유명한 곳은 여러 사람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만큼 네거티브 에너지(사악한 기운)의 영향도 쉽게 받아요. 파워스팟에 갔더니 오히려 피곤해졌다고 할 때는 누군가의 상념에 '사로잡힌' 건지도 몰라요. ... 부정적인 에너지의 영향 아래 있을 때에는 본래의 자신과는 다른 감각을 지니게 되어 쉽게 반응하게 되는 거 같아요. ... 에너지가 올라가 호전반응이 나올 때는 ... 시험당하는 듯한 일이 생겨요.<sup>40</sup>

이와 같은 의견은, 유명한 스폿에서 파워를 받으려는 태도를 비판하고 파워스팟에서 자신의 신상에 일어나는 반응을 민감하게 관찰하여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특권화하는 언설이다.

### (3) 초감각적 지각: 영시(靈視)이거나 명상 상태의 이미지

파워스팟이 스피리추얼한 에너지나 존재로 넘친다면 보통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것을 지각하는 체험(초감각적 지각)이 있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후기는 소수로 대상블로그 중에서는 두 개만 해당한다.

커다란 나무가 마치 도리이(鳥居) 같기도 해요. 부동명왕(不動明王)을 비롯해 이날의 멤버처럼 여섯 개의 불상이 있었어요.(b5)

참가자 중 텐카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 세 명뿐[모친과 사춘기 아들과 딸—필자]. 두 형제는 영감체질(靈感體質)이라 신사에 따라서는 다가가지 못하는 곳도 있다는데 텐카와신사는 대절찬. ... 그런데 텐카와의 신으로부터 “조용히 오세요” 하는 메시지가 들어갔구나 봐요. ... 그리고 한창 순서대로 참배하

40 高橋久美, 「パワースポットの危険性と注意点について」, 2017. 7. 13, <http://globo-site.com/power-spot/>

고 있을 때 이 영능력자 M씨 가족의 오빠 아이가 살짝 저한테 “제단의 공물 앞에 신이 서서 지긋이 우리들을 보고 있어요.” “!!!!!!” 초등학교 6학년인 여동생한테도 확인했더니 역시 보인대요. 머리 긴 여자 신이 서서 쳐다보고 있다고… 게다가 그 아이한테 말을 걸어줬대요. “잘 있었니?” 하구요.(b10)

모든 투고글에 공통된 것은, 직업적인 영적 치료 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이 집단으로 가서(b5는 개운 스피리추얼 코치, b10은 대우주에너지 요법사)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영적 존재가 보인다는 보고가 나올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명확한 ‘영시’(靈視)가 아니라도 일종의 명상 상태에서 보행을 계속하는 중에 이미지가 떠오르는 체험도 있어 영시와의 경계는 모호하다. 아래의 게시글은 ‘공기’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발견한 것인데 불가시적인 것을 보고 있는 듯한 후기다. 장소는 미와산이다.

산의 정상을 향해 6할 지점을 넘은 부근에서 갑자기 공기가 가벼워져요. 빛이 번쩍번쩍하며 되돌아와 안쪽에서부터 수목을 빛나게 하는 것 같아 한없이 오르고 싶어져요. 그 공기 속에 잠겨 있고 싶어요. … 그리고 정상에는 테굴테굴 놓인 검은 돌들. 그곳에 빛기둥이 자욱이 끼어 아래 세계로 차웁니다. 구르는 돌들이 마치 파동 변환기와 같아요.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돌의 배치에 의지가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아름다운 금빛이 그곳을 통과함으로써 생명력 넘친 초록빛으로 바뀌어가요.<sup>41</sup>

이 문장은 잎의 되비침이나 돌의 반사광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명상하는 등산 중에 기분이 고양됨으로써 터져나온 이미지를 기술한 것인지, 그도 아니면 에너지의 초감각적인 환시를 증언한 것인지 분명치

41 terasumonnmoku, 「奈良・パワースポット巡り. 三輪山, 橿原神宮〜」, 2016. 6. 14, <http://artandlove.exblog.jp/25703123/>

않다.

이 투고자와 마찬가지로 많은 파워스팟 탐방자는 파워스팟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신체적 감각과 심리적 변화를 명상 상태(참배, 등배, 나무나 돌을 만지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종합해서 초심리적인 인식으로 구성하고, 파워스팟 탐방자에게 공유된 단어를 사용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한 패턴이 인터넷상에서 공유되어 체험의 재생산과 유행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체험을 기술하는 언어가 체험을 구성하는 순환이 발견된다.

#### 4)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현세이익

파워스팟 붐을 이끈 『시마다 가다! 전국 개운 파워스팟 가이드북』 목차를 보면 연애운, 결혼운, 건강운, 금전운, 도박운, 직업운의 상승이라는 현세이익과 관련된 단어들이다.<sup>42</sup>

그러나 ‘현세이익’으로 블로그를 검색하면 광고 또는 소문을 정리한 블로그 형태의 기사가 많다. 대상블로그에서도 들은 얘기를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적어도 대상블로그 작성자는 현세이익을 목적으로 방문하지 않았다. 또 방문해서 현세이익을 실감하는 이도 거의 없다. b7은 인연 점지를 목적으로 젊은 여성이 모이는 것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모두에서 소개한 DeNA트래블의 조사에서는 파워스팟 방문 목적은 ‘에너지가 얻는다’가 80.9%, ‘치유’가 57.8%로 많고, 현세이익에 해당하는 금전운이 38.4%, 건강운은 35.3%, 직업운은 28.0%, 연애운은 16.6%로 적다. 실감한 효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효과는 모르겠지만 좋다”고 한 사람은 37.8%이고, 연애운 효과를 실감한 사람은 5.0%밖에 없다. 파워스팟의 현세이익에 관한 평판은 광고성 정보가 실체 없는 풍문으로 유포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험 삼아 많은 여성이 인연 점지를 기원하며 찾는 도쿄대신궁(東京大神宮)을 예로 트위터에서 ‘도쿄대신궁 남자친구가 생겼다’로 검색하면 아래와

42 島田秀平, 『島田秀平と行く!! 全国開運パワースポットガイド決定版!!』, 講談社, 2010.

같은 게시글이 발견된다.<sup>43</sup>

저는 도쿄대신궁에 참배한 지 3개월 만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게 남편  
이 됐어요.(♡)ω(♡)(2016. 3. 23)

도쿄대신궁, 다섯 번 간 적이 있는데 그중 세 번은 다녀온 직후에 남자친구가  
생겼다. 하지만 결국 세 번 다 헤어지고 말았다.(2017. 8. 29)

‘남자친구가 생긴’ 것이 기원에 의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  
다. 기원하지 않았으면 남자친구가 생기지 않았을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  
하다. 또 누구나 연애가 성사된다고는 할 수 없다.

설날에 도쿄대신궁에서 좋은 인연을 기원한 동기가 이미 남자친구가 생겼다니,  
완전 장난이 아니네요. 같이 갔는데...이상하네...(2017. 1. 30)

결국 남자친구를 원한다고 하는 바람이 강한 사람은 파워스팟 방문과  
상관없이 남자친구가 생길 가능성도 높고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익이 있었  
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차가운 눈길로 보는 이용자도 있다.

도쿄대신궁에 참배했더니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트위터를 가끔 보는데 남자친  
구를 만들기 위해 애써 참배를 하고, 그것을 트위터에서 공개할 만큼 ‘행동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2017. 4. 8)

방문자에게는 현세이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성이 이미 있다는 지적이  
다. 반대로 파워스팟을 방문함으로써 소원성취를 향한 적극적인 자세가 더  
강화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43 투고자의 ID 및 투고글의 URL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생략한다(최종 검색일: 2017. 12. 1).

## 6. 현세이익과 심리이익

도쿄 23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술의식 조사에 따르면 신불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며 주술효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32.3%였던 데 반해 이루어질 리가 없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면 의미는 있다’며 심리효과를 인정하는 사람이 57.4%였다. 다만, 젊은 여성일수록 또 신분이나 영의 존재를 믿는 사람일수록 주술효과를 기대한다고 한다.<sup>44</sup> 따라서 빈번히 파워스팟을 방문하는 사람의 경우, 문자 그대로 기원을 통한 현세이익을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와 ‘마음이 편안해진다’의 중복회답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대답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에 중점을 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 확인해온 것처럼 파워스팟 탐방자는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신선한 공기나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 물 있는 곳의 습기를 만끽하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심리상태가 편안해지거나 적극적으로 되는 것만으로도 효과, 즉 ‘이익’을 얻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심리적인 이익을 얻고 있으니 소원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파워스팟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마음이 편해진다’면 의미가 있다’고 답하는 사람 중에는 마음의 평안을 바라며 파워스팟을 방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자신만의 인장수첩(御朱印帳)(신사나 절에서 참배객들이 인장을 받는 일종의 수첩류-음간이)을 지참한 채 자신만의 테마를 갖고 신사를 순례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sup>45</sup> 그런 경우, 현세이익만이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파워스팟, 또는 ‘성지’를 찾고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됐

44 荒川敏彦, 「祈願に対する効果意識: 呪術効果と心理効果」, 竹内郁朗 / 宇都宮京子 編著, 『呪術意識と現代社会: 東京都二十三区民調査の社会学的分析』, 青弓社, 2010, 231~248쪽.

45 「女性に大ブーム中!お寺や神社巡りが楽しくなる「御朱印集め」の魅力とは?」, 『ANGIE』, 2017. 6. 17, [https://www.excite.co.jp/News/woman\\_clm/20170617/Angie\\_240536.html](https://www.excite.co.jp/News/woman_clm/20170617/Angie_240536.html). 또 신사 측이 순례를 위한 인장수첩을 배포하는데 참배자는 자신의 전용 인장수첩을 꺼내 인장을 모으고 있음을 필자는 2016년 6월 13일 도카쿠시신사와 2017년 2월 7일 도쿄대신궁에서 각각 확인했다.

을 것이다. 필자가 입장수첩을 많이 취급하는 가게—사원이나 신사에 부속되지 않은—점원에게 입장 모으기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물은 적이 있다. 그러자 “신불과의 연이 깊어질 뿐 이익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도쿄, 2017. 2. 7)

필자를 취재해온 『마이니치신문』 기사 「현대여자론(제17강)」(2014. 7. 25)에서는 연애 성취에 효과가 있다는 이즈모대사(出雲大社)를 중심으로 한 파워스팟 버스투어 ‘파워스팟 버스’에 기자가 동행하여 모습을 전하고 있다.

미와 씨는 1년 만의 이즈모 여행이라고 한다. “매일 일에 쫓기며 지쳐… 파워스팟에 오는 건 ‘기분을 전환하려고, 바꾸려고’ 하는 자신을 지탱해줄 힘을 제가 멋대로 느끼는 건지도요”. …히로미 씨는 스사신사를 나왔을 때 후련한 표정으로 말했다.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자신을 믿기로 했어요”. 앞으로도 상대를 계속 사랑할 거라고 한다.

여기서 회구되고 있는 것은 ‘기분’을 바꿔보려는 자신을 지탱해줄 힘이며, 방문을 통해 얻게 된 것은 망설임이 사라지고 연애 상대를 계속해서 사랑하겠다는 결의다. 즉, 표면적으로는 ‘현재이익’을 구하는 듯 보이면서 실제로는 소원성취에 부합할 만한 ‘마음’을 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마음이 갖춰지고 실연에 구애되지 않거나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등의 심리적 변화, 이른바 ‘심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객관적인 행불행(幸不幸)보다도 심리적 행불행의 감각이 더 중시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위 인용문의 ‘히로미 씨’는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망설이는 심정’이라는 불행한 상태가 파워스팟을 찾음으로써 ‘상대를 계속 사랑하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변했다. 마음속의 상대와 맺어지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그 앞의 미와 씨도 “매일 일에 쫓겨 지쳐서”라는 객관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심정’을 전환하고 바꿔줄 능력을 파워스팟에서

느끼고 있다. 그들에게 연애운, 직업운의 개운이란 객관적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연애나 일에 대한 자신의 '심정'의 개선을 의미한다 하겠다. 즉, 외면적으로는 현세이익을 구하는 참배 행위를 취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인생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대처법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심리이익'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심리이익이란 문제가 객관적으로 개선되지 않더라도 주관적인 마음 상태가 좋아져 긍정적으로 되는 것, 문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 나아가 소원 실현에 걸맞은 강한 의지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미래의 소원성취(현세이익)를 심리적으로 선취하는 것이다. 스피리추얼한 실천을 행함으로써 심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실천자는 만족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실천 그 자체가 보상이 된다. 필시 자신이 그러한 심리이익을 얻음으로써 주위의 타자, 나아가서는 우주에도 좋은 영향(이익)을 미치리라 여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7. 코엔의 관광현상학과 비교

이 절에서는 관광 연구 분야에서 고전이 된 에릭 코엔(Erik Cohen)의 「관광 여행자의 현상학」을 참조하면서 본 연구의 지견(知見)을 고찰하고자 한다. 관광 연구는 전통적인 종교적 순례와 근대 이후에 관광을 비교하면서 그 이동(異動)을 확인하고 여행이라는 의례를 분석하는 것을 하나의 과제로 삼아왔다. 코엔에 따르면 여행자에게는 다섯 가지 모드가 있다고 한다. (1) 먼저 대중관광을 즐기는 오락(recreation) 모드로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문화적 중심으로의 귀속을 강화하는 유의미한 일탈이다. (2) 그에 반해 기분전환(diversionary) 모드는 무의미한 일탈을 특징으로 한다. (3) 체험(experiential) 모드는 외부자로서 현지생활의 진정성(authenticity)을 존중하며 관찰하는 태도다. (4) 실험(experimental) 모드는 다양

한 문화를 비교하면서 취사선택하여 대안적 진정성을 탐구한다. (5) 마지막 실존(existential) 모드는 종교적 순례에 가까우나 주류와는 구별되는 영적 중심에 완전히 관여한다.<sup>46</sup> 이러한 코엔의 유형을 파워스팟 탐방자에게 적용한다면 실험 모드의 탐방자는 신도에 구애받지 않고 복수의 문화적 전통의 파워를 절충하는 대안적 진정성을 구축하여 파워스팟 개념을 창조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대중화함에 따라 신사신앙이라는, 문화적으로 진정한 중심으로의 귀속을 확인하는 유의미한 일탈을 지향하는 오락 모드 여행자를 늘려갔다는 것이 될 것이다.

한편, 코엔은 오락적 여행자는 타자의 문화를 즐기면서 탐구하고 그것이 가짜의 문화적 소산이더라도 놀이의 태도로 향유한다며 진정성의 기준이 넓다고 한다. 그에 반해 체험적 여행자는 이문화 존중에 대한 진정성의 엄밀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 실험적 여행자는 여러 가지 선택된 중심을 시도해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의 기준에 관해서는 엄밀하다고 한다.<sup>47</sup> 관광 연구에서는 대중관광과 진정성을 추구하는 개인관광이 대비되지만 코엔은 그 차이를 여행자가 생각하는 '진정성'의 넓고 좁음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즉, 진정성은 해석에 달려 있고 진정성과 상품화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이는 파워스팟 현상이 진정한 신기신앙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하는 선행 연구의 논의를 상대화한다. 즉, 무엇이 진정하고 본래적인가 하는 해석은 복수(複數)이므로 파워스팟에도 복수 모드의 여행자·관광객이 중층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46 Erik Cohen, "A Phenomenology of Tourist Experiences," *Sociology* 13(2), 1979, pp.180~201.

47 Erik Cohen, "Authenticity and Commoditization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 1988, pp.371~386.

## 8. 오미와신사를 둘러싼 중층적 진정성:

### 신기신앙·현세이익·자연숭배

여기서 신사를 예로 어떻게 진정성에 관한 복수의 해석이 공존하는지를 확인하겠다. 먼저, 신사 측은 공식사이트 등에서 산 그 자체가 신이라는 자연 숭배의 특유함을 강조하면서도 국조신 오모노누시노오카미(大物主大神)를 비롯한 신들이 진좌(鎮座)해 있다는 신기신앙을 전면에 내건다.<sup>48</sup>

그러나 필자는 2010년 4월 25일에 방문했을 때, 농업·공업·상업 등 인간생활의 수호신이라는 설명을 현지에서 보고 창조신이라기보다 현세이익을 관장하는 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경내에는 도처에 달갈과 술이 봉납되어 있었다. 현지 사람에게 물으니 오모노누시노카미는 뱀의 신이기 때문에 달갈을 좋아한다고 하며, 인터넷상으로도 경내에 출현해 달갈을 먹는 뱀 사진을 볼 수 있다.<sup>49</sup> 그러나 뱀의 신이라는 것은 신사의 공식사이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참배자의 모습은 나라현의 다른 관광 사원과 비교하면 매우 진지해서 합장한 채 몇 분 동안이고 움직이지 않은 채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 미와산은 분지의 동쪽, 해 뜨는 방면에 있어서 참배길은 빛이 쨍쨍 내리 쬐는 숲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참배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에서 관광지라는 인상은 받지 못하고 ‘칭아하고 진지한 방문자를 모으는 파워스팟’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렇지만 참배자의 모습을 그날 면회한 현지 거주 종교학자에게 얘기하자 “장사를 주관하는 신이라서 진지하게 기원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제신에게 현세이익을 기원하는 것은 승경자에게 있어서는 진지하지 못한 행위가 아니라 생업에 뿌리내린 진지한 신앙에 뒷받침된 행동임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필자는 며칠 후인 2010년 5월 6일 ‘오미야신사’를 검색어로 블

48 三輪明神大神神社, 公式ホームページ, 2014, <http://oomiwa.or.jp/>

49 개인 트위터 주소, <https://twitter.com/maruetsu55/status/772068514576207872>

로그를 검색했다. 야후재팬의 블로그 검색(복수의 블로그를 검색하는 검색엔진이 있으나 현재는 종료)과 SNS의 mixi일기에서 검색 상위 10건을 검색했다. 합계 20건의 블로그 중에서 10건은 보고일 뿐 내용 기술이 부족했다. 나머지 10건 중에 파워스팟에 관한 언급은 6건, 심리적 변화에 관한 언급은 5건, 이익에 관한 언급은 4건, 뱀에 관한 언급은 3건이었다. 파워스팟을 언급하고 있는 것 중 이익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1건뿐이었다. 파워스팟이라는 명성을 듣고 찾아갔다가 등산 때문에 피곤했지만 심리적이거나 스피리추얼한 의미에서는 신체산으로부터 파워를 얻어 건강해졌다는 내용이 많았고, 이익과 뱀에 관한 언급은 과반수에 못 미쳤다. 즉, 오미와신사가 파워스팟이라고 기대하며 먼 곳에서 방문한 사람은 현세이익에 관한 정보를 보더라도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처럼 신사 측의 신기신앙, 현지에서 관찰되는 진지한 현세이익 추구,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자연숭배형의 파워스팟 애호가 오미와신사라는 동일 장소에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코엔의 유형론을 적용하면 신사 측은 신기신앙을 진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교적 순례를 모범화한다. 현지의 숭경자는 뱀신에 대한 현세이익적인 신앙을 진정한 것으로 본다. 신사에서 현세이익 기원은 오락형으로 간주되기 쉽지만 당사자는 진지한 모습이다. 파워스팟 탐방자는 자연 가득한 경내에서 파워를 얻는 것을 진정한 것이라고 보지만 오미와신사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험 모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의 두 유형은 이 대안적 진정성의 탐구를 신기한 오락형의 유행으로 여겨 진정한 것이라고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시마다 슈헤이의 책에서 볼 수 있듯, 많은 파워스팟 가이드는 제신(祭神)을 소개하고 현세이익을 그 일화로 설명한다. 그리고 방문자는 현세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효과를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어 신체적 효과, 심리적 효과에서 고유의 심리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파워스팟을 의식하는 내방자는 현세이익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코엔이 말하는 오락 모드가 눈에 띄기는 해도 그 핵심에 있는 것은 실험 모드 여행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파워스팟 체험은 선행 연

구에서 지적하듯 신기신앙에서의 일탈이기는 하다. 그러나 파워스팟 탐방자는 가마다 도지의 주장에서도 볼 수 있듯 복수의 신사에 걸쳐 있는 자연 숭배의 실천에서야말로 신도의 본래 모습, 또는 신도를 넘어선 진정성을 발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9. 파워의 탈문맥화와 일반화

결국, 파워스팟 방문과 ‘파워’의 향유란 선행하는 종교적 순례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참배라는 행위 자체에서는 양자를 외견상으로 구별할 수 없다. 하지만 두 가지 새로움이 있다. 먼저 장소 그 자체의 ‘파워’가 탈문맥화되고 있다. 즉, 현지의 문화를 모르더라도 지역의 집단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종교 의례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장소의 파워를 떼어내 개인적으로 향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간주되고 있다. 참배 자체보다도 신목의 파워를 얻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 될 수 있다. 해외 파워스팟의 경우 네이티브 아메리칸(native American)의 성지처럼, 한번 파괴된 원주민의 문화가 과도하게 단순화되어 만들어진 ‘전통’으로 제시됨으로써, 그 성지의 파워만 골라먹는 식의 관광이 성립한다. 이는 코엔이 말하는 실험 모드지만, 일본 신사의 파워스팟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문화적 중심으로의 귀속 강화로 향하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오락 모드의 관광이 된다.

두 번째 새로움은 수험도나 영술가(靈述家)나 무녀 등 소수자만이 구사해 온 주술력이나 영험함 등의 ‘파워’를 획득하는 행위가 관광화에 의해 보통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었다는 점이다. 파워스팟 관광은 선진(先進)에게 사사하여 역사나 전통을 따라 특수한 실천을 거쳐 마침내 일상적 생활공간으로 회귀하는 수행이나 순례와는 다르다. 일반인이 매스미디어나 소셜미디어, 개인적 관계를 매개로 정보를 얻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의지해 일시적으로 그 장소에 침취해 있다가 비교적 빨리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두 가지 — 파워의 탈문맥화와 일반화 — 는 상호작용하며 또 그 상호

작용은 인터넷의 보급으로 가속화한다. 개인 차원의 '파워' 체험이 언어화 되고 패턴화되어 서로 소통됨으로써 관광지의 콘텐츠로서 사회적으로 구축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나 영적인 파워는 종래에는 초능력자나 영능력자나 기공사만이 느끼는 것이었다. 실제로 파워스팟의 명성은 이 같은 특수한 능력자가 '파워를 감지했다'고 선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그것은 곧 일반인에 의해 추체험 가능한 것으로 유통되어간다. 빛이나 물, 공기에 관한 신체적 감각을 기초로 활력이나 치유, 신비함이 인상으로 정착되고, 그것을 파워나 에너지, 파동과 같은 말로 표현하며 파워에서는 현세이익보다도 심리이익을 얻고 있다. 그런 후에 같은 장소를 찾으니 일정 정도의 확률로 모두가 파워를 느낄 수 있다는 신념이 공유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메이지 이후에 성립한 신화중심의 신기신앙으로 회수 될 수 없는 개인주의적인 자연숭배를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가 지적하는 대로 신기신앙으로부터의 일탈이라 할 수 있으나 앞서 소개한 가마다 같은 경우는 이를 보다 오랜 신도(神道)의 자연숭배로 보며 파워스팟 탐방을 오히려 더 진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근세부터 계속되는 순례와 관광, 산악수행 등과 완전히 무관한 신비한 유행으로 결론내릴 수 있을까. 성급한 결론은 삼가야 할 것이다. 또 파워스팟이 신사에 집중하는 것이 내셔널리즘으로 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셔널리즘적인 신도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자연지향의 파워스팟 탐방자가 어떠한 정치적 경향을 지니는지 등의 문제는, 향후 연구에 맡기기로 한다.

\*이 글의 원문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이경희(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일본근현대문학 전공)가 번역했다.